

익산시, 휴대폰 통화연결음 활용 전국체전 홍보

2018 전국(장애인)체전 주개최도시인 익산시가 지난 7월부터 익산시 행정전화와 휴대폰 통화연결음을 활용하여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8월 말부터는 시민들까지가 입대상을 확대해 시민이 직접 전국체전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체전'을 추구할 계획이다.

휴대폰 통화연결음 가입방법은?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알뜰마당 2018 전국(장애인)체전 통화연결음 가입 안내 배너 클릭·해당 서식에 맞춰 음원 설정(이름버전, 아이버전), 신청자 이름, 지역명, 통신사, 휴대폰 번호, 명의자 이름, 명의자주민번호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즉시 설정된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부터 전국장애인체전이 끝나는 10월 23일까지 지속되며 10월 30일부터는 자동해지된다. 요금은 익산에서 전액 부담하며 요금명세서에는 한의되어 0원으로 고지된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전국체전 대비 가로환경 일제정비

익산시가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해 일부 노후화된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을 교체하고 불법 현수막 제거를 위한 차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차단형 현수막 게시대 19기 39면(행정: 9기 18면, 상업: 10기 21면)을 신규 설치함으로써 총 80기 151면의 차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차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불법 현수막 제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남부지역을 위주로 차단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성화봉송로를 따라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의 낡은 상판을 교체하고 지정 벽보판을 정비하는 등 전국체전을 대비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힘을 기울인다.

아울러 가로환경 정비 차원에서 북부시장과 평화동 공구상 밀집 지역 등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위해 시장 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태풍 '솔릭' 대비 긴급대책회의

호우·강풍대비·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 등 피해예방 활동강화 재해취약지역·공사장 등 공사장 내 임시시설 전도 방지 조치 지시

익산시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소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박철웅 부시장 국소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

기상청은 태풍 솔릭은 최대 풍속 144km/h, 강수량은 70~400m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형 태풍으로 한반도에 상륙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태풍 솔릭은 이날 오후 익산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돼 22일과 23일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종합행정 담당과장은 읍면동에 출장 나가 호우 및 강풍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 통제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및 마을방수 등을 활용, 태풍발생시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또한 시는 재해취약지역·공사장 등 예찰을 강화토록 공사 책임자에게 공사장 내 임시시설·가림막·타워코크인 등의 전도없어져 넘어짐) 방지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빗물받이와 배수로를 점검하고 강풍에 대비해 고층

건물 창문 고정, 조립식·노후 건물 지붕 결박, 간판·현수막·육상 조형물 결박,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고정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를 비상근무도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정현을 시장은 "과거 태풍 피해 사례를 교훈 삼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은 태풍 진로를 미디어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태풍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상환



익산시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소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박철웅 부시장, 국소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태풍이 완전히 산을 보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줄길 소멸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초등생 대상 '생생직업 체험교실' 참여 학교 모집

가능 업종 8개중 선택·9~11월 중 회당 2시간씩·총 14회 운영 신청자격 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0명 이내 참여 가능

군산시는 관내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생한 직업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2018년 하반기 생생직업 체험교실'에 참여할 초등학교를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체험이 가능한 업종은 8개로 소방관, 화가, 요리사, 버리스타, 제빵사, 플로리스트, 수의사, 군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9~11월 중 회당 2시간씩 총 14회 운영될 예정이다. 직업 체험교실 신청자격은 군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로, 4~6학년 학생이 20명(소방관은 40명, 군인은 50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고 참여 학생들의 재량수업 편성 및 학교안전보험 적용이 가능해야 하며, 지도교사 1명 이상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참여 신청서와 참여자 명단을 작성한 후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순서대로 체험교실 참여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진로 체험 교육을 제공해 미래의 주역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금마 가로경관개선사업 공사현장 점검·보강 마무리 박차

익산시가 추진 중인 금마 동고도리 일원 가로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해 안전시설 미흡구간, 통행불편 구간 등을 안전시설 보강 조치했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도익산의 중심가로인 금마시가지의 고도길, 금마길에 대해 고도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도경관의 큰 저해요소인 전신주와 전선을 없애는 전선지중화와 병행추진해 올해 3월 착공하였으며, 가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중굴착 방지 등 사업성적상 전선지중화(8개업체)와 보차도 정비, 하수관 정비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조치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점검 후 경미하거나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보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추후에도 사업 준공까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공 관계자들에게도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으로 금마가 고도 이미지에 맞게 변화되는 과정임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안전사고 예방교육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4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군산·장항항 선박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와 같은 해양사고 통계 및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구명뗏목 및 소화 장치 작동법을 체험하는 등 종사자들의 선박 비상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홍상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선박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 사고 없는 군산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의정 돌입

30일까지 9일간 일반안건 18건 심의·의결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22일 제21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8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조규대 의장은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만큼 세심하게 살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동료의원들

에게 당부하였으며, "기록적인 무더위에 가뭄까지 겹쳐 서민들과 농가들의 고통이 심한 가운데 태풍이 상륙할 예정이라고 하니,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3~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8~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된 후 마무리하게 된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의회 이순주 의원, 시 공무원 공직기강 질타

익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하이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익산시의회에 입성한 이순주 시의원은 22일 제2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 산하 1500여 공무원들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울퉁퉁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음주운전만 6건, 뇌물수수 2건과 업무부당처리 1건 등 총 8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면서 근무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순주 의원은 "정현을 시장 취임 이후인 2016년 7월부터 살펴보면 뇌물수수 6건, 음주운전 12건

을 포함해 총 23건이 발생해 1명은 파면, 나머지는 견책부터 감봉 2월까지의 징계처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2016년 7월부터 2017년말까지 1년 6월간 익산시 공무원 음주운전이 6건 발생되었는데, 울퉁퉁 7개월간 음주운전 적발이 6건 발생한 것은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진 결과"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특히 "요즘 시청과 읍면동을 찾은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많이 불친절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말로만 친절을 외치기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